1004섬 1004테마…신안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 조성

군 '제1회 신안군 정원의 날' 맞아 '1섬 1테마정원' 계획 발표
'향기의 섬' 증도·'평화의 숲' 하의도·'암석 정원' 암태도 등

보라색의 성지 퍼플섬에 아스타 꽃을 보러오는 사람들로 넘쳐났다. 지난 2일 하루 퍼플섬을 찾은 관광객은 개장 이래 가장 많은 8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신안군은 지난 4일 '제 1회 신안군 정원의 날' 행사를 갖고 최대역점시책사업으로 컬러마케팅, 1도 1뮤지엄 사업과 더불어 각 섬마다 특색을 살린 스토리가 함께하는 1섬 1테마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계획된 총 24개소 중 조성이 완료된 11개소와 조성중인 8개소를 비롯해 향후 5개소를 추진 할 방침이다.

조성이 완료된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은 10억원 이상의 소나무 분재를 비롯해 명품분재 200여점를 감상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겨울 꽃 축제와 함께 애기동백길이 조성되어 있어 겨울철에도 꽃을 볼 수 있다.

퍼플섬 반월, 박지도는 유엔 세계관광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유명 잡지 및 언론에 최단기간 가장 많이 보도가 된 신안의 가장 핫플레이스다. 이곳은 속옷까지 온통 보랏빛으로 물드러진 곳으로 라벤터, 아스타, 버들마편초 등 사시사철 보라색 꽃을 볼 수 있는 곳으로 현재 아스타 꽃 축제로 연중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자은도 뮤지엄파크 내에 조성한 목련 테마정원은 백악기에 출현해 지금까지 남아있는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릴 만큼 오래된 식물인 목련이 주인공으로 주변 조개박물관과 수석박물관이 함께 어우지며 장관을 이룬다.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인 도초도는 수국의 섬으로 5만평에 이르는 면적에 수국 40만본이 만발한다. 수국정원 정상엔 세계적 설치미술가인 올라퍼 엘리아슨의 바빌리온 미술관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수국정원과 연결되어 있는 60~100년된 팽나무 716그루가 10리길로 장관을 이루고 있어 여름철 관광객 감탄이 절로 나오는 곳이다.

축제가 진행중인 맨드라미 섬 병풍도는 맨드라미 꽃 밭으로 세계 최대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12사도 순례길과 노두길, 갯벌이 함께 연출되어 멋진 풍경을 자아내는 곳으로 종교인들도 많이 찾고 있다.

올해 완공된 증도 태산목 정원은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으로 증도 입구에서 8.5km에 이르는 태산목길과 더불어 돈나무와 금목서 은목서를 함께 심어 향기의 섬으로 조성됐다.

증도와 함께 북부권에 위치한 임자도 튤립 홍매화 정원은 그 어떤 나무도 살 수 없다는 금기를 깨뜨린 지역으로 방풍림을 조성해 조선홍매화, 백매화 등이 지천이다. 조희룡 미술관이 있어 문화·예술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곳으로 지난해 임자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수선화의 섬 선도는 신안군 색채 마케팅 선두 주자로 노란 물감을 뿌려 놓은 듯 동화속 섬을 만들어 할머니의 꽃 사랑을 담아 놓았다.

천연기념물 170호로 지정된 홍도는 식물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도원추리가 전지역에 분포해 있다. 다른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크고 아름답고 고와 관상 가치 뿐만 아니라 고유자생의 유전자원으로도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 현재 조성중인 8개소 정원 중 상수원지 용도폐지가 된 지도 장동 저수지 일원 약 5만평에는 라일락 정원과 함께 놀이시설이 조성 중으로 올해 완공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비금도는 간재미정원 조성, 김대중 전 대통령의 흔이 살아있는 하의도의 인동초와 하귤을 심어 한반도 평화의 숲을 조성하고, 장산도 팜파스 그라스, 샤스타데이지 등 흰꽃을 테마로 한 '화이트 섬'을 추진중이다.

1004섬과 이어진 암태도는 지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바위가 많은 지역으로 상수원지 개발로 채취된 돌들을 활용한 암석정원으로 물안개와 함께 납매, 창포 등을 심어 한 폭의 수채화를 돌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이도, 매화도, 우이도, 수치도 등 작은섬 5개소도 정원을 추가로 조성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앞으로 신안군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2억만평의 1004섬을 아름다운 정원, 숲이 울창한 섬, 꽃이 만발한 섬으로 조성해 세계 최대 섬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내년 하수도 신규사업 187억 확보

안동·삼산 신기 마을 등 4건

해남군이 내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187억을 확보해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다.

해남군은 해남읍 안동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삼산 신기, 삼산 감당, 북일 갈두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총 4건을 내년도 하수도 분야 신규사업으로 확정했다.

사업비는 국비 109억원을 포함 187억원으로 2025년 완료 예정이다. 군은 공공수역 수질 개선 및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등 삶의 질 향상에 5000여명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삼산면 신기마을은 현재 제2스포츠타운이 조성되고 있어 하수 처리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따라 생활하수 등의 정화 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5건의 계속사업을 포함해 19건, 996억원(국비 620억 원) 규모의 하수도 분야 사업이 추진된다.

해남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하수도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업이 다년간 추진되는 만큼 군민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영광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 힘 모은다

군·재경향우회 내년 첫 시행 앞두고 제도 홍보 등 협력키로

영광군과 재경영광군향우회가 내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힘을 한데 모은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 스포티움에서 재경영광군향우회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전남도에서 주관한 재경광주전남향우회 고향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전남을 방문한 향우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했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영광군 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 홍보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정착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 '고향사랑기금의 사용목적과 사용처 홍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홍보' 등이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고향발전에 힘을 보태기 위해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향우 한분 한분에게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향우회와 적극 소통·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강종만(왼쪽) 영광군수가 조성호 재경영광군향우회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영광군 제공〉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진도 남도산성 메타버스 추진

진도군이 대표 관광지 남도산성을 메타버스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한다.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특화 콘텐츠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도 남도진성 메타버스 콘텐츠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마쳤다.

진도군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주)스마트큐브 3자간 협약을 체결해 오는 11월 말까지 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한다.

특히 전남 최초로 지역특화 콘텐츠를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즐기는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해 색다른 실감 체험형 메타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진도 남도진성은 관광객들에게 첨단기술로 만든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진도의 대표 관광지로서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